

현대 한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성과와 과제*

채 숙 희**

한국어에서 연결어미는 문장 확장의 주요 기제로, 이에 관해 오랜 기간 다방면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 연결어미 연구를 크게 형태와 통사, 의미, 사용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주요 논제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고 남은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결어미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복합어미의 판별과 목록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연결어미의 통사와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의 지위, 즉 접속절과 부사절의 문제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연결어미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의미 체계, 의미 범주에 대한 논의들과 함께 의미 확장의 문제와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한다. 아울러 연결어미의 관계 의미 외의 의미라 할 수 있는 상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에 관한 논의들도 살펴본다. 연결어미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실제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결어미의 사용역별 사용 양상을 분석한 논의들을 검토한다.

핵심어: 연결어미, 복합어미, 접속절, 부사절, 의미, 상, 양태, 사용역

1. 서론

연결어미는 복문 형성 기제의 한 축으로서 현대적 문법 연구의 초기부

* 이 논문은 국어학회 2023년 여름 학술대회(2023년 6월 17일)의 기획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긴 글을 꼼꼼히 읽어 주시고 유익한 질의와 논평을 해 주신 임채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다양한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현대 한국어의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실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개별 연결어미부터 의미나 통사를 기준으로 한 특정 유형, 연결어미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으며, 그 영역은 형태부터 통사, 의미, 그리고 실제 사용 양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현대 한국어 연결어미의 연구 성과를 크게 형태와 통사, 의미, 사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 영역별로 그간 논의된 주제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고 많은 관심을 받은 몇몇 주제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결어미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복합어미의 판별과 목록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결어미의 통사와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의 지위, 즉 접속절과 부사절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본다. 연결어미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의미 체계, 의미 범주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과 함께 의미 확장의 문제와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에 대한 문제들을 다룬 연구들을 검토한다. 아울러 연결어미의 관계 의미 외의 의미 문제를 다룬 것으로, 연결어미의 상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에 관한 연구들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결어미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자료 중심의 연결어미 연구라 할 수 있는 사용역 분석에 기반한 연구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방대한 양의 연구가 축적된 만큼 연결어미에 대한 크고 작은 질문들이 그 답을 찾았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은 곳곳에 남아 있다. 영역별로 상이한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어,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모아 다루지 않고 해당 주제의 말미에 함께 논의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다.

2. 연결어미의 형태와 목록

한국어에서 연결어미의 수는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목록도 아직 확정

적이라 하기 어렵다. 연결어미의 목록 확정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복합어미들의 경우인데,¹⁾ ‘-더니, -고는, -다고’와 같은 어미와 어미의 결합형 또는 어미와 조사의 결합형들은 분석하기에 따라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결합형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하나의 연결어미로 문법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결합형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고 논란 중에 있으며,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결합형, 인용구문에서 발달한 ‘-다고’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복합어미의 판별 문제를 중심으로 연결어미의 형태와 목록에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1.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결합형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결합형 가운데 해당 선어말어미를 제외한 형식이 공식적으로 연결어미로 존재하면, 이들을 하나의 연결어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단순 결합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어말어미 ‘-느’가 포함된 형식으로는 ‘-느니’와 ‘-는데’가,²⁾ ‘-더’가 포함된 형식으로는 ‘-더니’와 ‘-던데’, ‘-더라면’, ‘-던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³⁾ ‘-느’가 포함된 ‘-느니’, ‘-는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

1)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어미가 된 어미를 ‘복합어미’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이희자 1996: 342-343, 임동훈 1998: 86-87, 이금희 2012: 228), 연결어미의 경우 ‘통합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서태룡 1998, 김종록 2002, 김종록 2004 등). 최근 유현경·이찬영(2020)에서는 이러한 복합어미들과 단순 결합형들을 포괄하여 ‘어미 결합형’이라 부르고 이들의 사전적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2) 본고에서 연결어미의 대표형은 ‘-으니/-니’와 같은 경우는 ‘-으니’와 같이, ‘-아서/-어서’와 같은 경우는 ‘-어서’와 같이, ‘-는데/-는데’는 ‘-는데’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3) 서태룡(1998: 438)에서는 형태적으로 선어말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연결어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선어말어미로 볼 수 없는 ‘-거’ 결합형을 제외하고 ‘-느’와 ‘-더’를 포함하고 있는 연결어미들은 다음과 같다.

가. -느라고, -느라, -느니, -느라니(-노라니), -느라면(-노라면), -는데, -느니나, -더니, -더라니, -더라면, -던들, -던데, -더라도, -더니만

으나, ‘-더-’가 포함된 형식들은 아직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느-’가 포함된 ‘-느니’와 ‘-는데’의 경우 연결어미로서의 자격 여부를 문제 삼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들을 ‘-느-’와 연결어미의 결합 형이 아닌 하나의 연결어미로 보는 근거를 제시한 논의로 김종록(2004: 43), 김종록(2007: 40-41)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김종록(2004: 43)에서는 ‘비교’를 나타내는 ‘-느니’가 선어말어미 ‘-느-’가 없을 경우 더 이상 ‘비교’의 의미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느니’를 문법화가 완료된 하나의 어미라고 보았다. 김종록(2007: 40-41)에서는 ‘-는데’ 앞에 ‘-었-, -겠-, -더-, -었었-, -었겠-’ 등의 시제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는데’를 단순 결합형이 아닌 하나의 어미로 파악하였다.

연결어미로서의 자격 문제는 선어말어미 ‘-더-’를 포함한 형식들이 논란이 더 큰데, 이 가운데 ‘-더니’ 및 ‘-었더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며 이에 대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더니’에 대해서는 김종록(2004), 박재연(2009ㄴ), 송재목(2011ㄱ), 송재목(2011ㄴ), 송창선(2014) 등에서는 선어말어미 ‘-더-’와 연결어미 ‘-으니’의 의미가 유지되어 하나의 어미가 아닌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단순한 결합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서정수(1978), 송재영·한승규(2008), 손욱(2019), 양정석(2022) 등에서는 하나의 어미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재영·한승규(2008)에서는 ‘대립’과 ‘추가’의 의미를 획득하고 ‘-으니’에 있는 ‘설명’, ‘양보’, ‘나열’의 의미를 갖지 않으며, 선·후행절의 주어가 같으면 1인칭 주어도 쓰일 수 있어 ‘-더-’의 주어 인칭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 등 통사·의미적으로 ‘-더-’와 ‘-으니’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더니’를 하나의 어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송재목(2011ㄱ: 48-53)에서는 ‘-더니’의 관계 의미는 모두 ‘-으니’에서도 관찰되는 것이며, ‘-더니’에서 보이는 ‘과거직접관찰’이라는 증거성 의미는 ‘-더-’와 관련짓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고, 말뭉치 분석 결과 ‘-더니’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었더니’의 경우, ‘-었-’과 ‘-더-’와 ‘-으니’를 모두 분석하는 관점(송재목

2011 ㄱ, 송재목 2011 ㄴ, 최정진 2013, 송창선 2014 등), ‘-었더-’에 ‘-으니’가 결합했다고 보는 관점(박재연 2003, 박재연 2009 ㄴ), ‘-더니’에 ‘-었-’이 결합했다고 보는 관점(송재영 · 한승규 2008), 전체를 하나의 어미로 보는 관점(서정수 1978, 이필영 2011, 손욱 2019, 양정석 2022)으로 나뉜다. 송재목(2011 ㄱ)와 송재목(2011 ㄴ)에서는 ‘-더니’나 ‘-었더니’의 관계 의미가 모두 ‘-으니’에서 관찰된다고 보고, 이들을 각각 ‘-더-’와 ‘-으니’, ‘-었-’, ‘-더-’와 ‘-으니’로 분석하였으며, 송재목(2011 ㄱ)에서는 ‘-었더니’가 주로 1인칭으로 쓰이는 것은 ‘-었-’의 완료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박재연(2003)과 박재연(2009 ㄴ)에서는 ‘-었더니’의 ‘-더-’가 일반적인 ‘-더-’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었더-’가 ‘-더-’에서 일반적인 ‘흔적 지각’ 용법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었더니’가 ‘-더니’가 아닌 ‘-으니’와 시제적 대립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었더니’를 ‘-었더-’와 ‘-으니’로 분석하였다. 송재영 · 한승규(2008)에서는 ‘-더니’를 하나의 어미로 보고 있는데, ‘-더니’의 특성이 ‘-었더니’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 ‘-었더니’를 ‘-었-’과 ‘-더니’로 분석하였다. 이필영(2011)에서는 ‘-었더니’가 역사적으로 ‘-었더-’와 ‘-으니’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기는 하나, ‘-으니’에 결합한 ‘-었더-’가 공시적으로 ‘-으니’에 과거의 의미를 더해 주지 않는다고 보아, 서정수(1978)에서와 같이 ‘-었더니’를 하나의 어미로 간주하였다. 손욱(2019)에서도 ‘-었더니’의 ‘-더-’가 종결부의 ‘-더-’와 달리 ‘새로 앞’의 의미가 없고 후행절에 명령문과 청유문이 올 수 없어 ‘-으니’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었더니’를 하나의 어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재연(2009 ㄴ)과 양정석(2022)에서는 ‘-더니’와 ‘-었더니’를 포함하여 ‘-더-’가 결합한 연결어미 형식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두 논문에서는 ‘-더니’와 ‘-었더니’ 외에 ‘-더라도’, ‘-었던들’, ‘-었더라면’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양정석(2022)에서는 그 외 ‘-던데’와 ‘-던지’도 다루고 있다.⁴⁾ 이들 형식 가운데 ‘-더라도’와 ‘-었던들’은 두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하

4) 기본적으로 양정석(2022)에서는 박재연(2009 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던데’와 ‘-던지’

나의 연결어미로 보고 있다. 양정석(2022: 28)에서는 이들이 형식적으로 ‘-더-’를 포함하고 있지만, 직접증거성의 의미가 없으며 인칭 제약의 특징을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⁵⁾ 박재연(2009ㄴ)에서는 ‘-있던들’이 양보의 ‘-은들’과 달리 조건의 의미를 표현하며(이익섭·채완 1999, 이희자·이종희 1999), ‘-있-’ 없이는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있던들’의 형식으로만 사용되므로(최재희 1991: 131, 이희자·이종희 1999: 185) ‘-있던들’ 전체를 하나의 연결어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논문에서 분석에 있어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있더라면’인데, 박재연(2009ㄴ: 129-134)에서는 ‘-더라면’이 ‘-있-’ 없이 용언에 직접 통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더라면’을 단순 결합형으로 파악한 후, 이를 ‘-있더니’와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의 ‘-있더-’와 조건의 ‘-으면’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양정석(2022)에서는 ‘-있더라면’도 ‘-더라도’나 ‘-있던들’과 마찬가지로 직접증거성의 의미가 없고 인칭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나의 연결어미로 분석하고 있다.

2.2.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결합형

보조사는 연결어미 뒤에도 위치할 수 있는데 연결어미 가운데는 ‘-아도/어도’와 같이 기원적으로 연결어미에 보조사가 결합한 형식이 새로운 연결어미로 문법화한 경우도 있어서,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결합형을 하나의 연결어미로 보아야 할지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단순 결합형으로 보아야 할지

를 포함하여 ‘-더-’를 포함한 이들 형식들이 모두 한 단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니, -있더니, -던데, -던지’는 ‘직접증거성에 대한 전제 의미’를, ‘-있더니’는 선행절의 ‘의지적 사건성 전제 의미’를, ‘-있더라면, -있던들’은 조건 연결어미로서 ‘반사실성의 전제 의미’를, ‘-더라도’는 양보 연결어미로서 ‘조건 명제들의 비교’를 전제 의미로 각각 가지는데, 서로 다른 전제 의미의 특성들은 이들 각각을 하나의 어미로 보아야만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보았다.

- 5) 박재연(2009ㄴ)에서는 ‘-더라도’의 분석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김종록(2004: 65)에서는 ‘-더라 해도’로의 환원이 불가능하고 ‘가정적 양보’의 의미 기능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어미라고 파악하였다.

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선어말어미 ‘-더-’와 관련된 문제와 달리, 보조사 결합과 관련된 문제는 이견이 크지 않으며 일부 어미들과 관련해서만 논의가 되었다. 이금희(2012), 장운예(2022)에서는 ‘-고는, -고서는, -다가는, -어서는’이 연결어미와 보조사 ‘는’이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단순 결합형인 경우도 있지만 각각 하나의 연결어미로 문법화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⁶⁾ 이금희(2012: 230-232)에서는 이들 어미들에서 ‘는’을 생략할 경우 조건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점, 조건의 ‘-으면’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점, ‘-고, -고서, -다가, -어서’에는 없는 후행절 과거시제 제약이 발생하는 점을 이들이 하나의 연결어미가 되었다고 보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 외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결합형이 하나의 연결어미로 문법화한 예로 논의된 어미들은 보조사 ‘도’를 포함하는 ‘-는데도’(김종록 2010, 이금희 2012, 이선영 2011, 서명숙 2013), ‘-고도’(김종록 2010, 이선영 2011, 오로지 2012, 서명숙 2013), ‘-으면서도’(이선영 2011, 서명숙 2013), ‘-고서도’(김종록 2010)와, 보조사 ‘만’을 포함한 ‘-고만’(이금희 2012)이 있다. 이 가운데 ‘도’를 포함한 ‘-는데도, -고도, -으면서도, -고서도’는 대체로 양보의 의미를 표현하는 어미로 논의되었는데, 이선영(2011)에서는 ‘-는데도, -고도, -으면서도’가 대조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보다 다양한 언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들과 같이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단순 결합형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어미로 분석될 수 있는 예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연결어미의 목록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로, 장운예(202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공시적 결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연결어미가 보조사와 결합 가능한 것도 아니고, 모든 보조사가 연

6) 이금희(2012)에서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연쇄와 문법화한 연결어미를 대조하여 보인 예 가운데 ‘다가는’의 경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는 잠이 들었다.

나. 이런 도로에서 과속하다가는 사고가 나겠다.

결어미와 결합 가능한 것도 아니며,⁷⁾ 같은 연결어미라 하더라도 의항에 따라 보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⁸⁾

2.3. ‘-다고’류

간접인용구문에 쓰인 ‘-다고, -냐고, -라고, -자고’와 같은 ‘-다고’류는 피인용절 어미와 인용표지의 결합형으로 분석되지만,⁹⁾ 다음과 같이 원인, 목

7) 보조사의 분포를 조사한 나은미·최정혜(2009)에 따르면, 명사를 선행 요소로 삼는 보조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조사류, 종결어미류, 연결어미류, 부사류 순으로, 연결어미류와 결합하는 보조사는 종결어미류의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27개 보조사 가운데 ‘이야, 도 만, 까지, 요, 부터, 이나, 이라도, 들, 밖에, 마저, 뿐, 다가, 는, 조차, 만큼’은 연결어미류와 결합이 가능하고, ‘이란, 마다, 대로, 이야말로, 이나마, 이라고, 이라든지, 커녕, 이든지, 거나, 마는’은 연결어미류와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8) 최규수(2019: 800)에서는 다음의 예를 들어 선행의 ‘-고’는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나열의 ‘-고’는 보조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보였다.

가. 장대를 들고(는, 도, 만) 산으로 간다.

나. 산은 높고(는, 도, 만) 물은 깊다.

9) 간접인용구문에서의 ‘-다고’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는 크게 종결어미와 ‘고’의 결합형으로 보는 입장과 ‘-다고, -냐고, -라고, -자고’ 자체가 하나의 부사형어미라고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고’를 보는 입장에 따라 다시 둘로 나뉘는데, 조사로 보는 입장과 어미로 보는 입장이 있다. 후자의 근거는 모든 종결어미 뒤에 ‘고’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냐, -라, -자’ 뒤에만 결합하여 ‘-다고, -냐고, -라고, -자고’의 연쇄만 쓰인다는 점(유현경 2001: 81, 구본관 외 2015: 275, 고영근·구본관 2018: 353), 완결된 문장 그 자체에 격조사가 붙는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점(유현경 2001: 80, 김선혜 2014: 145), ‘-다고, -냐고, -라고, -자고’ 자체가 원인, 목적의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로 발달한다는 점(유현경 2001: 88-89, 유현경 외 2018: 462-463), ‘-다, -냐, -라, -자’와 ‘고’ 사이에 휴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함병호 2020: 359), 어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부사형어미를 이루는 ‘-기에’, ‘-기로’와 같은 예도 있다는 점(함병호 2020: 367) 등이다. ‘-다고’ 등을 각각 하나의 어미로 볼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고’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 유현경(2001: 87)에서는 ‘-려고’와 ‘-느라고’에서도 ‘고’가 생략되므로 ‘-다고’ 등에서의 ‘고’ 역시 이에 견주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종결어미 ‘-느냐’, ‘-느가’, ‘-느지’ 뒤에도 격조사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점(윤정원 2011: 176, 함병호 2020: 351), ‘고’가 생략되면 종결어미만 남는데 이를 ‘-다고’ 등에서의 생략으로 보면 종결어미가 곧 부사형어미의 역할을 한다고 해야 한다는 점, 비표준형으로 간주

적 등을 표현하는 ‘다고’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더 이상 종결어미와 인용표지의 결합형이 아니며 하나의 연결어미로 문법화하였다고 보고 있다.

- (1) 가.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동창회에 못 갔다. (강규영 2017: 48)
- 나. 동생한테 준다고 정선이가 스카프를 샀다. (구종남 2016: 83)
- 다. 이 일은 용서를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양지현 2021: 78)
- 라. 보기에 좋으라고 꽃을 꽃았어. (박근영 2015: 181)
- 마. 나 살자고 다른 사람들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이금희 2022: 128)

장경희(1987)에서는 (1가)의 ‘다고’에 대해 인용문 형식의 관용적 쓰임으로 보고 그 의미를 ‘구실’로 파악하였다. 유현경(2002나) 등 이후 논의에서는 이를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았다. (1나)의 ‘다고’는 목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는데, 박만규(1995), 남미정(2010), 강규영(2017), 이금희(2022) 등에서는 이를 (1가)의 원인의 ‘다고’와 구분하고 있다. (1다)의 ‘다고’는 남미정(2010), 구종남(2016)에서 양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논의되었는데, 강규영(2017)에서는 이를 ‘다고 해서’에서 ‘해서’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다고’와는 구별하였다. (1라)의 ‘라고’와 (1마)의 ‘자고’는 채숙희(2011), 구종남(2016), 강규영(2017), 이금희(2022) 등에서 목적을 표현하는 연결어미로 논의되었다.¹⁰⁾

박만규(1995), 이금희(2006), 채숙희(2011) 등에서는 이러한 ‘다고’류를 간접인용구문의 일부가 아닌 연결어미로 보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이들이 결합한 절이 인용동사의 보어가 아닌 점,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라고, 자고’ 앞에 형용사가

되기는 하나 ‘다라고, -나라고, -라라고, -자라고’와 같은 연쇄가 자주 사용되어 ‘다’와 ‘고’가 분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고’ 등이 종결어미와 ‘고’의 결합형이 아니라, 하나의 어미라는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10) 이금희(2006), 구종남(2016), 이금희(2022)에서는 (1)의 ‘다고, -라고, -자고’ 외에 “뭐 하느냐고 오밤중까지 집에 안 들어 와?”와 같은 예에 쓰인 ‘냐고’도 원인을 표현하는 연결어미로 파악하였다.

사용되는 점, ‘그렇게’로 대응되지 않고 ‘뭐라고’나 ‘어떻게’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는 점, ‘고’가 생략되지 않는 점, ‘-다라고, -냐라고, -라라고, -자라고’의 연쇄가 불가능한 점 등이다.

3.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의 지위

학교 문법에서는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누고 있으나, 이들에 의한 복문의 형성 방식을 어떤 것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연결어미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¹¹⁾ 이와 관련하여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와 관련된 접속절과 부사절의 문제는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최근까지도 관련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주요 관점들을 간략히 검토한 후, 이 문제를 다룬 최근의 연구들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3.1.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의 지위에 대한 관점

학교 문법의 체계에서 대등적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은 대등접속절, 종속적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은 종속접속절이 되겠으나, 복문의 형성 방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이들을 보는 관점은 상이하다.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의 지위에 대한 관점은 크게 모두 접속절로 보는 관점과, 접속절과 내포절의 일종인 부사절로 구분하는 관점, 모두 부사절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이 부사절이라고 볼 경우에는 결합하는 어미도 연결어미가 아니라 부사형어미가 되어 연결어미의 목록에서 제외되게 된다.

3.1.1. 모두 접속절로 보는 입장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을 모두 접속절로 보는 입장은 연결어미가 절과 절을 잇는 접속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논의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결어미에 의해 절과 절이 이어지는 방식을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관점은 최현배(1937/1971)에서 복문을 포유문, 병렬문, 연합문으로 삼분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연결어미가 사용된 문장을 병렬문과 연합문으로 나누었고, 이것이 이후에 각각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이익섭 2003).

최현배(1937/1971)에서는 연합문의 선행절, 즉 종속접속절에 대해 대등성이 강하여 또는 대등성이 좀 약하더라도 후행절을 꾸민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부사절로 볼 수 없고, 병렬문의 선행절, 즉 대등접속절이라 하기에는 두 절의 관계가 긴밀하고 묶여 한 덩이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보아 제3의 범주로 설정하였다(이익섭 2003: 40). 이와 같이 대등접속절과 종속접속절을 구분하는 관점은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을 모두 접속절로 보는 남기심·고영근(1985/1993), 권재일(1992) 등 이후의 연구에서 대부분 그대로 계승된다.

3.1.2. 접속절과 부사절로 구분하는 입장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을 접속절로 보고 두 절의 관계에 따라 이를 다시 대등접속절과 종속접속절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이 관점에서는 기존의 종속접속절을 내포절 중 하나인 부사절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접속에 기존의 대등접속만 있고,¹²⁾ 기존의 종속접속은 부사절

12) 이에 따라 이익섭(2003), 임동훈(2009), 주지연(2015)에서와 같이 ‘접속’이라는 용어 대신 ‘병렬’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내포로 간주되어 명사절 내포, 관형사절 내포와 함께 내포의 일원으로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은 접속절과 부사절로 나뉘게 되며, 부사절에 쓰인 어미는 부사형어미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종속접속절이 통사적으로 대등접속절보다는 부사절과 공통성이 크다는 분석, 그리고 복문의 형성 방식이 병렬(conjoining)과 내포(embedding)로 양분되는 일반언어학 체계에서 종속(subordination)은 내포(embedding)와 같은 용어라는 분석(이익섭 2003)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속접속절은 곧 부사절이라는 주장은 남기심(1985)에서 시작된 것으로(이익섭 2003), 남기심(1985)와 이를 뒤이은 유현경(1986)에서는 종속접속문이 대등접속문과 통사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자리 이동, 역행 생각, 재귀화는 부사절 포유문의 특성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¹³⁾ 이를 근거로 종속접속절은 곧 부사절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 김영희(1991), 이관규(1992) 등을 통해 이러한 주장은 강화되었으며, 이익섭·채완(1999), 이익섭(2000), 안명철(2001) 등을 통해 이러한 관점이 널리 자리 잡게 되었다. 학교문법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2002년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¹⁵⁾ 최근에 발간되거나 개정된 문법서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점을 취하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고려를 표시하고 있다.¹⁶⁾

13) 남기심(1985)에서 제시된 해당 예를 각각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비가 와서 길이 질다. / 길이 비가 와서 질다.

나. 공부를 하려고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다. (그의, 자기) 아들이 수석 입학을 해서 김 씨가 기분이 좋더라.

14) 김영희(2004)에서는 그 외, 주제어 가능성, 목적어 승격, 역행 조응을 종속접속절이 부사절이라는 논거로 제시하였다.

15) 교사용 지도서(2002)에서는 종속접속절만 부사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을 모두 부사절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도서에서는 대등적 연결어미나 보조적 연결어미도 결국 부사형어미로 볼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16) 구본관 외(2015)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접속문에는 대등접속문만 남기고 종속절과 부사절을 모두 부사절로 다루고 있는데(구본관 외 2015: 256-259, 269-273), 학교 문법을 고려하여 연결어미의 분류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를 유지하고 있다(구본관 외 2015: 201-204). 대신 종속적 연결어미는 모두 부사

3.1.3. 모두 부사절로 보는 입장

기존의 종속접속절을 부사절로 보는 입장이 입지를 넓혀가는 가운데 유현경(2002-1)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종속접속절뿐 아니라 대등접속절까지도 부사절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종속접속뿐 아니라 대등접속까지도 부사절 내포로 보아 문장의 확장에서 접속이라는 기제를 없애고 내포만 두자는 입장이 된다.

이러한 입장의 근거는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구분이 의미적인 것이지, 통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현경(2002-1)에서는 대등접속의 ‘-고’를 예로 들어, 종속접속과 마찬가지로 형태통사적인 의존성이 있고, ‘-고’는 접속부사 ‘그리고’나 ‘-는 동시에’와 같은 부사구로 대체될 수 있으며, ‘-고는, -고도’와 같이 보조사가 붙어 한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고, 후행절 없이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최근 부사어를 다룬 김혜영(2019)에서도 대등접속절을 부사절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의 근거로 대등접속절과 종속접속절을 통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형 연결어미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구본관 외 2015: 270). 유현경 외(2018)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종속절을 대등절과 함께 접속절로 묶는 기존의 관점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즉, 접속문을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으로 분류하고, 다시 부사절 포유문과 관련하여 종속접속문이 부사절 포유문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유현경 외 2018: 441-444, 456-457). 연결어미의 분류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부사형어미가 종속적 연결어미로도 기능한다고 기술하여 복문에서의 처리와 통일시키고 있다(유현경 외 2018: 258-259). 이에 반해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는 종속절과 부사절이 구조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종속절을 대등절과 함께 접속절로 처리하고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 334-337, 317-324). 그러나 별도의 난을 통해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는 관점도 소개하고 있으며, 부사형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의 구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고영근·구본관 2018: 352). 남기심 외(2019)에서는 이와 같이 접속을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 의미적 차원에서 구분된다고 보고 있으며(남기심 외 2019: 360-361), 부사절 내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종속적 연결어미가 이끄는 문장은 의미적, 통사적으로 부사어의 특징을 지니, 종속적 연결어미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기술하고 있다(남기심 외 2019: 352).

하기 어렵다는 점, 대등접속절의 경우에도 선·후행절의 관계가 완전히 대등하지는 않다는 점,¹⁷⁾ 대등접속절을 접속부사로 대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김혜영 2019: 23-33).

이러한 관점에 대해 유현경(2011: 362-363)에서는 종속접속절만을 부사절로 보고 대등접속절만을 접속절에 둘 때 생기는 체계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실제 자료에서 형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장을 내포문 또는 접속문으로 구분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접속절과 부사절의 통사적 공통점과 대등접속절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포만이 문장의 확대를 담당한다고 보는 기술이 언어유형론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보았다.

실제로 임동훈(2009ㄴ)에서는 언어유형론적인 검토를 통해 절 병렬과 종속¹⁸⁾, 즉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을 구분하는 기준들 중 한국어에서 유의미한 기준으로 언표수반력과 절대시제, 초점화, 역행 대응, 선행절의 위치, 공백화 현상을 들어 이들이 통사적으로도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시제 독립성, 독자적 언표수반력, 동일 술어 반복, 'X-어미 Y-어미' 구성, 명사구 병렬의 존재를 근거로 한국어에서 병렬문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지연(2015)에서도 이를 지지하며, 병렬은 형식적·의미적으로 모두 등위적인 복수의 항목이 나열된 구조를 만들어 내는 언어 단위 연결의 원리라는 점, 병렬에 의해 형성된 언어 구조는 위계적 2항 구조가 아니라 대등한 다항구조라는 점, 병렬에 의해 형성된 언어 구조에는 핵을 상정할 수 없

17) 김혜영(2019: 31)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예를 들어 대등접속절에서도 선·후행절의 관계가 완전히 대등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하였다. 두 예 모두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후행절이며, 두 번째 예에서 시제 해석이 후행절의 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나. 배가 아프지만 밥을 많이 먹었다.

18) 종속은 절 단위의 결합만을 가리키지만 병렬은 절보다 작은 단위 사이의 결합도 포괄하는 용어로 대칭적이지 않다(임동훈 2009ㄴ: 90). 기존의 대등접속은 절 단위의 관계이므로 병렬 관련 논의에서의 '절 병렬'에 해당한다.

다는 점에서, 병렬은 통사적으로 의존(내포) 구성과는 구별되는 구성을 만들어 내는 원리라 보았다(주지연 2015: 15-24).

또한 유현경(2002)에서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의 구분이 통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현상들에 대해서도, 문숙영(2019: 505-506)에서는 형태통사적인 의존성은 한국어가 부동사형(converb) 언어이기 때문이며, 접속부사 등으로의 대치에 대해서는 해당 대체 표현을 부사류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순환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모든 연결어미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사가 붙는다고 해서 다 성분인 것도 아니며, 종결어미로 발달하는 것도 내포적 관계가 아니라 접속에 의한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3.2. 최근의 관련 연구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의 지위 문제 자체를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최근 연구로는 김건희(2012), 김선헤(2014), 문숙영(2019) 정도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종속접속절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들도 보인다. 하영우·김민국(2018)과 전태희·신지영(2020)에서는 운율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의 통사적 지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3.2.1. 종속접속절의 존재를 지지하는 연구들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 가운데 대등접속절만 접속절로 인정하고 종속접속절은 부사절로 보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의 김건희(2012), 김선헤(2014), 문숙영(2019)는 종속접속절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간 종속접속절과 부사절의 공통점이라고 제시된 통사적 기준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종속접속

절의 의미 유형이 부사어와는 다름을 지적하였다.

김건희(2012)에서는 기존의 종속접속절과 부사절의 공통점이라고 제시된 통사적 기준들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반례도 있음을 보인 후,¹⁹⁾ 접속과 내포가 다양한 문장의 실현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부사적 기능의 수식과 연관되는 문법형태소는 다양한데 이들을 모두 부사형어미로 포괄할 수 없으므로 종속접속절을 굳이 부사절로 포함시키는 것보다 그 문법적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선혜(2014)에서는 종속접속절과 부사절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 통사적 기제들이 그 함의나 개별 어미들 간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제들은 종속접속문이 대등접속문과 통사구조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종속절이 통사·의미적으로 주절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종속접속절이 부사절이라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았다.²⁰⁾ 또한 종속접속절은 명사절이나 관형사절과 달리 품사 차원의 내포로 볼 수 없으며 종속접속의 어미들은 각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기능을 가져 단순한 범주 전환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¹⁾ 종속접속절은 상위문의 구조에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19) 종속접속절은 대등접속절에 비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지는 못하지만 부정의 의미 영역, 주어 통제, 시제 및 서법 제약에 있어 부사절에 비해서는 그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점을 들었다(김건희 2012: 183).

20) 대용화, 주제어 제약, 이동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대용화는 종속접속절이 명사절이나 관형사절과 같은 층위라는 것이 아니라 대등접속절과 다르게 상위문의 지배를 받는 절이라는 것만 알려줄 뿐이라고 보았으며, 주제어 제약의 경우 내포절의 주어는 주제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라 분석하였다. 이동가능성은 논의마다 해석이 다르며 병렬적 구조를 종속접속절과 동격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정도만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21)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의 의미적 차이와 관련하여, 김인택(1993)에서는 부사가 정도나 양태, 방법을 나타내므로 부사절은 이러한 의미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쓰이지만, 종속접속절은 후행절과 논리적 관계를 가지므로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요한(2007: 205-206)에서도 부사나 부사절은 일반적으로 서술어나 구, 문장의 뜻을 분명히 하는 기능을 하면서 정도나 양태, 수량, 시간의 의미적 수식관계를 가지지만, 종

상위문 서술어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부가어로서, 종속접속절이 가진 종속성, 독립성, 의미적 다양성은 부가어의 특성이라 파악하였다.

문숙영(2019)에서도 한국어의 종속접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의존적이면서 내포적이지 않은 종속접속절의 존재를 적극 인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등위, 종속, 내포로 삼분되는 절의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종속접속절이 의존성을 띠기는 하나 주절 성분의 하나인 내포절로 볼 근거가 없고, 종속접속절이 무언가를 수식하는지도 모호하며, 의미부담량이 커서 전제된 배경 정보를 나타내는 부가어 성분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종속접속절은 부사절이 아니라고 보았다.²²⁾ 아울러 종속접속절을 담화의 수사적 관계가 문법적으로 표현된 절 연결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종속접속절이 주절에 의지하는 문법정보가 극히 적고 독립 화행을 가지는 경우도 많아 상당히 독립절 같은 면모를 보이는 점, 종속접속절의 의미 유형이 청자가 담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론되는 관계적 명제와 상당히 닮아 있는 점, 그리고 종속접속절이 주절과만 관련되지 않고 선행 담화를 환기하고 이후 담화 전체와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일도 흔하다는 점을 들었다.

속접속절은 원인, 조건, 선행 등의 의미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절을 수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종속접속절이 두 담화 또는 사태가 접속되어 새로운 담화 또는 사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화제적 의존성’을 갖는다고 보고, 종속접속절과 부사절이 구조는 같지만 의미적으로 구분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2) 구체적으로, 그간 내포성의 근거로 제시된 시제 제약 및 서법과 상대존재 정보의 부재는 내포성이 아닌 의존성의 증거로 보았으며, 여러 절들이 연결될 경우 종속접속절이 어떤 절의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절이 아니라 연결어미가 상대에게 통사적 제약을 부과하는 점을 근거로, 종속접속절을 내포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수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속접속절이 주절과만 연결되지 않으며 종속접속절이 단독으로 문장을 끝맺으며 선행담화와의 의존성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주절과 종속접속절 간의 연결이 느슨하므로 종속접속절이 주절이나 주절의 일부를 수식한다고 볼 결정적인 단서는 없다고 보았다. 종속접속절을 부가어 성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단언의 일부인 경우가 많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담화의 시작 부분에 쓰이는 경우도 많다는 점, 주절과 종속절 중에 주로 생략되는 것은 주절이라는 점, 연결어미 단독으로 문장을 끝맺거나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발달하는 일도 흔하다는 점을 들었다.

3.2.2. 운율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

최근의 논의들 가운데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운율과 관련 지어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하영우·김민국(2018)과 전태희·신지영(2020)이 그러한 연구들인데, 이들 연구의 결과는 각각 대등접속절을 설정해야 한다는 관점, 종속접속절은 부사절과 구분된다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하영우·김민국(2018: 163-164)에서는 연결어미 ‘-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접속문을 구성하여 문장 낭독 실험을 진행한 후, 점진하강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점진하강 재설정 은 일종의 운율적 경계 표지로, 주로 통사적으로 독립된 문장이 새로 시작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분석 결과 대등접속문에서 두 절의 경계와 점진하강 재설정을 통한 운율적 경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립된 문장과 마찬가지로 통사적 독립성을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등접속문 설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전태희·신지영(2020)에서는 32명의 자유 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총 14,120어절) 비종절 절 경계에서 관찰되는 운율 단위의 종류 및 운율 단위 사이의 휴지 실현 여부, 휴지의 지속 시간 등을 관찰하고, 통사 단위와 운율 단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접속절과 부사절 유형은 여러 변수와 관련하여 양극단에 있는 대등접속절과 관형절 사이의 중간적 수치를 보이며 서로 관련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운율적 특성들에 대해 종속접속절은 대등접속절에 가까운 실현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부사절은 대등접속절이나 종속접속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²³⁾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종속접속절을 접속절로 보고 부사절

23) 억양구 경계 실현율에서 종속접속절(73.8%)은 전형적으로 억양구 경계가 실현되는 대등 접속절에 가까운 실현율을 보였고 부사절(48.3%)은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억양구 후행 휴지 및 억양구 끝음절 지속 시간에서도 종속접속절은 대등접속절과 마찬가지로 관형절보다 긴 억양구 후행 휴지 지속 시간을 보였다고 하

을 내포절로 보는 관점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들과 관련해서는 자료 수집 방법, 자료의 분량과 구성, 자료 분석 기준 등의 문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영우·김민국(2018)에서는 낭독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자유 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전태희·신지영(2020)에서는 종속접속절과 부사절을 전적으로 문장 내의 위치로 파악하였다고 하였는데, 실제 분석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면 이 연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4. 연결어미의 의미

연결어미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개별 어미의 의미 기능을 다룬 연구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의미 체계나 의미 범주의 설정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의미 확장의 관점에서 연결어미의 의미가 논의되기도 하고 연결어미의 의미 기술에 사용되는 메타언어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어미의 의미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4.1.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

연결어미의 의미에 관한 논의들은 대체로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연결어미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개별 어미의

였다. 이에 반해 부사절은 억양구 끝음절의 지속 시간이 대등접속절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한).¹

의미 기능을 토대로 몇 가지 어미가 소속되는 의미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의미 범주 간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고, 각 의미 범주를 나열하거나(주시경 1910, 최현배 1937/1971, 전해영 1989 등)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으로 구분한 뒤 각각에 속하는 의미 범주를 제시하는 방식(권재일 1985, 최재희 1991, 임홍빈·장소원 1995 등)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연구들과 달리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 자체를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많지 않은데, 장경희(1995), 이은경(2000), 이은경(2015) 정도를 들 수 있다.²⁴⁾ 장경희(1995)에서는 연결어미들의 의미 범주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들 간의 관계 자체에 주목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어미가 나타내는 사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를 1차적으로 ‘공존 관계’와 ‘배타적 관계’로 나누었는데, ‘공존 관계’는 두 사건이 동시에 사실일 수 있는 관계이고 ‘배타적 관계’는 두 사건이 동시에 사실일 수 없는 관계이다. 연결어미가 표현하는 관계는 대부분 ‘공존 관계’이며, 배타적 관계에 속하는 어미는 ‘-거나’와 ‘-든지’ 정도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공존 관계’는 다시 ‘비의존 관계’와 ‘의존 관

24)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를 제시한 것은 아니나, 이와 관련된 논의로 Sohn(2009)를 들 수 있다. Sohn(2009: 294-299)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여러 언어에 공통적인 절 접속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한국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가. 시간 관계(temporal): 계기(temporal succession), 상대적 시간(relative time), 조건(condition)

나. 귀결(consequence): 원인(cause), 결과(result), 목적(purpose)

다. 첨가(addition): 무순서 첨가(unordered addition), 동일 사건 첨가(same-event addition), 설명(elaboration), 대조(contrast)

라. 대안(alterantives): 이접(disjunction), 제안(suggestion)

한국어 절 접속의 의미관계 유형을 논의한 박진희(2012)에서도 이 연구를 검토하였으나, 기존 논의 및 자료 분석 결과와의 차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박진희(2012)에서는 한국어 절 접속의 의미 관계 유형을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으로 나누고, 종속 접속은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묶어 ‘시간 관계와 배경’, ‘양보와 조건’, ‘원인·이유와 목적’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계'로 나누었다.

(2) 가. 배타적 관계

나. 공존 관계

① 비의존 관계: 시간 관계, 대립 관계, 동등/유사 관계

② 의존 관계 - 조건 관계: 인과 관계, 양보 관계

이러한 분류에 대해 이은경(2015: 345)에서는 두 사건이 동시에 사실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계기적 사건의 접속은 모두 배타적인 관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배타적 관계'와 '공존 관계'를 연결어미의 의미 분류의 최상위 계층에 둘 수 없다고 보았다.

이은경(2000)에서도 장경희(1995)에서와 같이 절들이 표현하는 사태와 사태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관계가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에 따라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분류하였다. 사태 간의 관계가 의존적인 경우는 다시 '시간적 관계'와 '논리적 관계'로 나누고, '논리적 관계'는 다시 '일반적인 결과 관계'와 '일반적인 예상에 어긋나는 결과 관계'로 나누었다.

(3) 가.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의 관계가 독립적인 구성:

나열 구성, 대조 구성, 선택 구성, 배경 구성

나. 선행절 사태와 후행절 사태의 관계가 의존적인 구성:

① 시간적인 관계로 연결된 구성: 선행 구성

② 논리적인 관계로 연결된 구성:

a. 일반적인 결과 관계: 원인 구성, 조건 구성, 결과 구성

b. 일반적인 예상에 어긋나는 결과 관계: 양보 구성

이은경(2015)에서는 장경희(1995)나 이은경(2000)에서와 같이 사태와 사태 사이의 관계에 따라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를 분류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연결어미의 의미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담화 기능이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를 제시하였다. 사태와 사태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연결어미는 선·후행절의 관계에 따라 ‘의존적 관계’와 ‘비의존적 관계’로 나누고,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어미의 의미는 ‘배경’과 ‘부연’으로 나누고 있다. 이때 담화 기능이라는 기준은 ‘배경’이나 ‘부연’의 의미가 통보적 기능이나 화용론적 관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아 설정한 것이다.²⁵⁾

(4) 가. 사태와 사태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연결어미:

① 비의존적 관계: 시간(동시, 선행), 대립, 비대립, 배타

② 의존적 관계: 조건(관여적 조건, 비관여적 조건), 원인, 목적

나.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어미: 배경, 부연

이은경(2000)의 분류와 비교하여, 이은경(2015)의 분류는 담화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시간’이 장경희(1995)에서와 같이 ‘비의존적 관계’에 위치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경희(1995: 155)에서는 사건이 그 발생에 있어 어떤 의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간 관계’를 ‘대립 관계’와 함께 ‘비의존적 관계’ 아래에 두었다. 또한 박재연(2011: 180)에서 전통적인 분류의 ‘조건’을 ‘관여적 조건’, ‘양보’를 ‘비관여적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이은경(2000)의 ‘양보’를 ‘조건’ 아래에 ‘비관여적 조건’으로 두었다.

이상과 같이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무

25) 구체적으로, ‘배경’에 대해서는 ‘는데’의 기능이 선행절보다 후행절에 의사소통의 기능을 더 크게 부여하는 통보적 기능이라고 파악하였고, ‘배경’이라는 용어 역시 사태와 사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담화와 관련된 용어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부연’에 대해서는 ‘-지’가 후행절의 사태와 일종의 함의 관계에 있는 사태를 선행절에 부연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화용론적 관련을 맺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엇보다 관련 연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간 축적된 개별 어미의 의미 및 개별 의미 범주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좀 더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의미 범주 사이의 관련성 문제도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조건’과 ‘양보’의 처리가 이은경(2000)과 이은경(2015)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이 의미 범주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경(2018: 121)에서도 의미 범주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를 계층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4.2. 의미 범주 설정의 문제: ‘양보’를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 간의 관련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의미 범주의 설정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 온 ‘양보’ 범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보’는 초기 연구들에서 별도의 범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가 이익섭·임홍빈(1983), 윤평현(1989), 전해영(1989), 이은경(2000) 등에서 별도의 범주로 설정되어 논의되었다. 그러나 신지연(2004)에서는 ‘양보’는 ‘대조’와 구분되는 별도의 범주가 아니며 ‘대조’의 일종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으로 ‘양보’는 ‘조건’의 하위 범주로 논의되기도 하였는데, 장정희(1995), 박승윤(2007), 박재연(2011)에서는 ‘양보’를 전형적인 ‘조건’과는 차이가 있지만 ‘조건’의 일종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4.2.1. ‘양보’와 ‘대조’

주시경(1910), 최현배(1937/1971) 등의 초기 연구에서는 ‘양보’를 나타내

는 것으로 논의되는 ‘-어도, -더라도’ 등이 ‘-으나, -지만’ 등의 ‘대조’의 어미들과 함께 묶여 ‘뒤집힘’, ‘방임’의 어미들로 제시되고 있으며, 남기심 · 고영근(1985/1993)에서도 이들이 ‘상반’의 어미로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익섭 · 임홍빈(1983), 윤평현(1989), 전해영(1989), 이은경(2000)에서는 ‘양보’를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고, ‘-어도, -더라도’ 등을 ‘대조’의 어미들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신지연(2004)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양보’를 분리하여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는 근거를 기대 부정의 의미와 선행절 사태의 비현실성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기대 부정의 경우 ‘양보’뿐 아니라 ‘대조’와 관련하여 화용론적 대조를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되며 비현실성은 연결어미의 관계 의미가 아니므로 연결어미의 범주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양보’를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양보’의 어미로 제시된 어미가 ‘대조’의 어미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 범주 고유의 형태가 없으며, 어미 자체가 아닌 조사 ‘은/는’의 사용 여부에 따라 ‘대조’와 ‘양보’로 달리 해석되므로 이들을 별개의 범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양보’를 ‘대조’와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신지연(2004)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연구에서도 ‘양보’를 ‘대조’와 구분하는 관점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구분의 기준은 ‘양보’가 갖는 기대 부정의 의미이다.²⁶⁾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양보’와 ‘대조’ 어미들의 의미별 사용양상을 분석한 조영순(2010), ‘양보’ 어미들의 문법 범주와 의미 특성에 대해 고찰한 이금희(2017),²⁷⁾ 그리고 연결

26) 신지연(2004)의 지적대로 비현실성은 관계 의미가 아니기도 하지만, ‘-어도’의 경우 선행절에 현실적 명제와 비현실적 명제가 다 올 수 있고, ‘-더라도’의 경우 비현실적 명제가 주로 온다고 논의되었으나(이은경 1990: 77, 최재희 1991: 157) 현실적 명제도 올 수 있어(서정수 1996: 1268, 박재연 2009ㄴ: 136) ‘-어도’와 ‘-더라도’를 ‘양보’의 어미라 하였을 때 비현실성이 ‘양보’의 특성이라 하기는 어렵다.

27) 이금희(2017)에서는 사실상 양보와 화용론적 대조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신지연(2004)의 입장과 달리, 화용론적 대조에 쓰인 ‘-지만’과 ‘-어도’가 교체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보’와 ‘대조’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어미의 사용역을 분석한 이의중(2020: 273)에서도 기대 부정의 의미를 들어 ‘양보’와 ‘대조’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양보’가 별도의 의미 범주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양보’를 ‘대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신지연(2004: 93)에서 제시된 대조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에서도 기대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함축적 대조’라 하여 ‘명제적 대조’와는 구분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이 ‘대조’를 다시 하위 범주로 나누는 입장이라면, ‘함축적 대조’를 ‘양보’라는 별도의 범주로 인정하고, ‘-지만’과 ‘-어도’를 ‘대조’와 ‘양보’에 모두 쓰이는 다의적 어미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신지연(2004)에서 기대 부정과 관련하여 ‘양보’를 별도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된 것은 ‘대조’의 어미들에서 보이는 화용론적 대조의 용법이 사실상 기대 부정의 용법이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신지연(2004)와 같이 이들을 모두 ‘대조’의 어미들로 보고 그 아래에 하위 범주를 두어 다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양보’를 별도의 범주로 인정하고 이들을 다의적인 어미로 처리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평현(1989), 최재희(1991) 등 여러 연구들에서 ‘대조’를 대등 접속으로 보고 ‘양보’를 종속 접속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대조’라는 한 가지 범주가 대등 접속의 양상도 보이고 종속 접속의 양상도 보인다는 것보다는, 해당 어미들이 다의적이고 의항별로 통사적으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이 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설명일 것이다.

4.2.2. ‘양보’와 ‘조건’

장경희(1995), 박승윤(2007), 박재연(2011), 이은경(2015), 이금희(2017)

28) 이 체계에서 ‘대조’는 ‘명제적 대조’와 ‘함축적 대조’로 구분되어 있다. ‘함축적 대조’에 대해서는 ‘양보’로 불리는 경우이며 선·후행절 사이에 발생하는 함축 의미와 후행절 사태가 대립되는 기대 부정의 경우를 가리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명제적 대조’는 어휘나 구문상의 대립에 의해 문면의 명제들 사이에 발생하는 대조로 규정하고 있다.

에서는 ‘양보’를 ‘조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경희(1995)에서는 ‘의존 관계’는 곧 ‘조건 관계’라 보고, ‘조건 관계’ 아래에 ‘인과 관계’와 ‘양보 관계’를 두었다. “여기는 바람이 불면 덥다.”와 “여기는 바람이 불어도 덥다.”를 비교하여 양보의 ‘-어도’는 조건의 ‘-면’에 비해 예외적인 조건임을 더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승윤(2007)에서는 양보도 일종의 조건이라 보았으며, 양보문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극단을 선택한 극단성 조건문(extremity conditional)이나 기준에 비추어 이에 못 미치거나 어긋나는 비최적성 조건문(non-optimal conditional)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박재연(2011)에서도 장경희(1995), 박승윤(2007)과 마찬가지로 ‘양보’를 ‘조건’의 일종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예외적인 조건이나 비최적성 조건이라는 관점을 비판하고, 양보는 관여적 조건의 영역을 배제하는 비관여적 조건(uninfluential condition)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예로, “영수가 와도 영희가 간다.”에서 주장되는 것은 영수가 오는 것에 상관없이 영희가 간다는 것으로, 영수가 오는 것이 비관여적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앞선 장경희(1995)의 예외적인 조건이나 박승윤(2007)의 극단성 조건문과 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영수가 오면 영희가 간다.”나 “영수가 와도 영희가 간다.”와 같이 자연 법칙이나 상식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은경(2015)에서는 양보를 비관여적 조건으로 파악하는 박재연(2011)의 견해를 받아들여 ‘양보’라는 범주를 없애고 ‘조건’ 아래에 ‘관여적 조건’과 ‘비관여적 조건’을 두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금희(2017)에서도 ‘양보’를 ‘조건’의 일종으로 파악하였지만, 박재연(2011)의 ‘비관여적 조건’이라는 명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데 전제된 사태라는 조건의 일반적인 개념에 비추어, ‘비관여적’이라고는 하였지만 후행절 사태의 발생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태를 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양보’와 ‘대조’의 문제와 달리, ‘양보’와 ‘조건’의 문제는 같은 형태의 어미나 동일한 예를 두고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지 판별하는 것

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그간 ‘양보’로 불려온 의미 범주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 범주이며, 이를 ‘조건’이라는 의미 범주의 하위 범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범주로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양보’를 ‘조건’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에서 대조와 양보의 표현에 동일한 어미가 사용되며 동일한 예가 두 가지로 다 해석 가능한 상황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조건’의 일종으로 보는 연구들에서 이러한 문제제에 대한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 대단히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되나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이들 범주의 관계 설정과 구분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3.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

연결어미는 다른 어미들에 비해 다의성(polysemy)이 풍부하게 나타나는데(박재연 2014: 118), 개별 어미가 가지는 여러 의미들을 의미 확장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연구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원표(1999: 130)에서는 ‘-으니까’가 ‘발견’의 의미에서 인식영역과 화행영역에서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은유적인 확장을 하였다고 보았으며, 임은하(2002: 129-130)에서는 그 반대로 인식영역에서의 인과관계에서 ‘발견’의 의미로 은유적인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고 파악하였다. 정수진(2011)과 정수진(2012)에서는 각각 ‘-고’와 ‘-어서’의 의미 확장을 다루었다. ‘-고’는 ‘나열’을 기본 의미로 하여 ‘동반’, ‘대조’, ‘강조’, ‘반복’, ‘계기’, ‘방법’, ‘이유’ 등으로 확장되고, ‘-어서’는 ‘계기’를 기본 의미로 하여 ‘지속’, ‘수단 · 방법’, ‘배경’, ‘원인 · 이유’, ‘목적’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함축의 관습화(conventionalization of implicature)를 통해 이러한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²⁹⁾ 박민신(2016)에서도 ‘-어서’가 ‘선행’에서 ‘이

29) 즉, 문맥에서 긴밀하게 연관된 선행 사태가 후행 사태의 원인이라는 함축을 발생시키기 쉬우므로 선행의 의미를 기반으로 원인의 의미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정수진 2012).

유, '배경', '방법'으로 각각 확장되어 나갔으며, 그 기제는 환유라고 파악하였다. 박호관(2015), 정해권(2022)에서는 '-으면서'의 의미 확장을 다루었으며, 김종록(2019ㄱ)과 김종록(2019ㄴ)에서는 '-으면'과 '-는다면'의 의미 확장을 각각 다루었다. 김강아(2020)에서는 '-지만', 황현동(2021)에서는 '-어도', 위설교·허춘화(2022)에서는 '-다가', 공나형(2022)에서는 '-게'의 의미 확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별 연결어미들의 의미 확장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 사이에서 포착되는 의미 확장의 문제를 다른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개별 연결어미들의 의미 확장의 양상을 살펴 보면 선행의 연결어미들 가운데 일부가 공통적으로 원인의 연결어미들도 발달하는 것과 같이 한 의미 범주에서 다른 의미 범주로 일정하게 의미가 확장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데 정수진(2013), 박재연(2014), Xu Chunhua(2018) 등에서는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 사이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의미 확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수진(2013)은 사태 관계를 '동시', '순차', '역차'로 삼분하고, 각 사태 관계 내에서의 의미 확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일례로 '순차' 사태는 '계기'에서 '지속'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다시 '지속'에서 '방법', '배경', '이유·원인' 사태로 확장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박재연(2014)에서는 단순히 의미 확장의 양상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의미 확장의 기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의 기제를 환유와 은유로 파악하였는데, 환유적 과정으로는 선행에서 원인이나 조건으로 발달하는 의미 확장과 목적에서 원인으로 발달하는 의미 확장을 들었다.³⁰⁾ 은유적 과정으로는 대립,

30) 선행의 연결어미가 원인, 조건으로 발달하는 예로는 '-어서, -다가, -고서, -자'를 들었고, 목적의 연결어미가 원인으로 발달하는 예로는 '-느라고, -답시고'를 들었다. 대표적인 예들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았다. / 시골이 공기가 좋아서 매일 아침 기분이 상쾌해.

나. 영화를 보다가 나왔다. / 냉방에서 자다가 감기에 걸렸다.

다. 영화는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학원에 등록했다. / 영화는 영어 공부를 하느라고 일

조건, 원인의 연결어미가 일반적으로 ‘내용 영역에서의 대립, 조건, 원인’을 나타내지만, ‘인식 영역에서의 대립, 조건, 원인’이나 ‘화행 영역에서의 대립, 조건,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는 의미 확장을 제시하였다.³¹⁾ 시간 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을 다룬 연구인 Xu Chunhua(2018)은 기본적으로 박재연(2014)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인데,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의 기제를 환유와 은유로 파악하고 주로 환유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환유적 과정으로 ‘계기’에서 ‘원인’으로 발달하는 경우 외에, ‘동시’에서 ‘방법’으로 발달하는 경우(‘-면서’, ‘-고’), ‘계기’에서 ‘방법’으로 발달하는 경우(‘-고’, ‘-어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은유와 환유와 같은 의미 확장의 기제를 통해 의미의 확장을 설명하는 것은 연결어미의 다의성에 대한 이해와 의미 기능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으니까’의 원인의 의미와는 별개의 의미로 파악되어 그 연관성이 잘 포착되지 않던 ‘-으니까’의 소위 ‘발견’의 의미는 박재연(2014)에서와 같이 ‘인식 영역에서의 원인’으로 파악하면 의미 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박재연(2014: 150-151)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다양한 연결어미들의 의미 확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굴이 반쪽이 되었다.

- 31) ‘대립’의 연결어미가 ‘내용 영역에서의 대립’뿐 아니라 ‘인식 영역에서의 대립’과 ‘화행 영역에서의 대립’을 보이는 예로는 ‘-지만’을 들었고, ‘조건’의 예로는 ‘-으면’을, ‘원인’의 예로는 ‘-으니까’를 들었다. ‘-지만’의 예들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영희는 공부는 잘하지만 성격은 그다지 좋지 않다.

나. 같이 일해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구두쇠야.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의 구분은 Sweetser(1990)에서 비롯된 것으로, 박재연(2014) 외에도 이원표(1999)부터 김수정(2019)에 이르기까지 연결어미의 의미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 도입되었다.

4.4.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개별 연결어미의 의미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방대하게 축적되면서 연구마다 의미 기술에 사용되는 용어나 기술 방식이 각기 다르다는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연구뿐 아니라 사전 기술이나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서도 연결어미의 의미 기술에 있어 메타언어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박재연(2011)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연구로, 연결어미의 의미 기술에 사용하는 메타언어의 선정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의미 기술에 사용된 몇 가지에 용어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³²⁾ 박재연(2011)에서는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으로, 종속적 연결어미의 메타언어는 선행절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 임의적 선정을 지양하고 체계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 역방향 검증법으로 검증할 것을 제시하였다.³³⁾ 이어 이은경(2015)에서도 박재연(2011)에서 제시된 선행절 의미 기능 중심의 원칙을 포함하여 연결어미 의미 기술에서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추가된 원칙은 체계적인 기술을 고려한 용어 선택, 동일 범주의 어미에 대한 공통 용어 사용, 논항구조를 반영한 용어 선택 등이다.

임채훈(2020)에서도 연결어미의 의미 기술에 있어 메타언어 선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박재연(2011)과 이은경(2015)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인 종속적 연결어미는 선행절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메타언어를 사용한다는 원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메타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속적 연결어미의 의미 기

32) 그간 ‘양보’로 기술된 ‘어도’와 같은 어미들은 조건의 일종으로 보아 ‘비판여적 조건’으로, ‘설명, 상황’으로 기술된 ‘는데’ 등은 ‘배경’으로, ‘발견, 지각’ 등으로 기술된 ‘으니(까)’의 일부 용법은 ‘이유’ 중 ‘인식 영역에서의 이유’로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33) 역방향 검증법은 임흥빈(1995: 445)에서 제안된 사전 뜻풀이의 검증 도구로, 뜻풀이를 역으로 적용하여 문제의 대상이 표제항의 지시 대상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능을 선행절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은 선행절이 후행절을 ‘수식’한다는 관점에서의 메타언어 사용이라 보아 반대하고, 연결어미의 기능은 모두 ‘연결’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근거로는 ‘-길래’와 같이 연결어미가 후행절에 통사적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 ‘-되’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후행절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고서’는 ‘선행’이 아니라 ‘선후’, ‘-어서, -으니까’는 ‘원인’이나 ‘이유’가 아니라 ‘인과’로 기술되어, 박재연(2011) 및 이은경(2015)의 관점에서의 기술과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그 의미를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로만은 기술할 수 없는 어미들이 존재하는바,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우선 순위로 하되 이러한 어미에 대해서는 선행절이나 후행절의 의미 특성으로 메타언어를 선정한다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는, ‘-으면’과 ‘-어도’를 각각 ‘조건’과 ‘비관여적 조건’으로 기술하는 것, ‘-되’와 ‘-지’를 각각 ‘부연’과 ‘단서’로 기술하는 것을 들고 있다.

연결어미가 표현하는 관계 의미는 실로 다양하여, 선행절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든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하든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의 논의들에서 보이는 입장 차이는 기본적으로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의 통사적 지위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서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어떤 기준을 선택하든 개별 연구 내에서는 그 기준을 최대한 일관되게 유지하여 메타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학문적 논의나 실용적 논의에서 혼란을 줄이고 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책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³⁴⁾

34)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은경(2000)의 용어를 따르되, 특정 연구의 필자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가져올 때에는 작은따옴표 안에 넣어 사용하여 원저의 것임을 표시하였다.

5. 연결어미의 상과 양태

연결어미 가운데 일부는 선·후행절의 관계 의미 외에 상적 의미나 양태적 의미도 표현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연결어미의 관계 의미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이러한 의미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지만, 다양한 연결어미들의 존재와 각 어미들의 특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 최근 활발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는 연결어미의 상적 의미와 양태적 의미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5.1. 연결어미의 상적 의미

연결어미가 표현하는 상적 의미는 양태적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이송녕(1961/1981: 287)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으며’가 ‘지속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되었고, 성기철(1972: 357)와 김홍수(1977: 119)에서는 ‘-고’의 완료적 성격이 논의되었다. 고영근(1986/1995: 244-245)에서는 ‘-으면서, -고서, -고자’ 등이 ‘진행상, 완료상, 예정상’의 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김성화(1990: 54)에서는 기존에 상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논의된 연결어미들은 ‘의사 상의 형태’일 뿐이고 연결어미는 상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박재연(2007: 75)에서는 그 근거로 제시된 동시, 선행 등의 관계 의미 표현이 연결어미의 상적 기능을 부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연결어미가 상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여, 박소영(2003), 홍윤기(2005), 박재연(2007), 강계림(2016), 정해권(2022)와 같이 최근까지도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적 의미가 연결어미의 의미 중 일부라면 연결어미의 주의미라 할 수 있는 선·후행절의 관계 의미와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박재연(2007)에서는 이 문제를 담화화용론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의 개

념으로 설명하였다.³⁵⁾ 문법 형식의 의미 성분 가운데도 화자가 더 부각하기를 바라는 전경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배경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연결어미의 경우 선·후행절의 관계 의미는 전경 의미가 되고 상적 의미는 배경 의미가 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연결어미가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적 의미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완료상(perfective)’과 ‘미완료상(imperfective)’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으나, 고영근(2004: 297)에서는 ‘완료상’, ‘진행상’, ‘예정상’으로 삼분하여 제시하였다. 완료상은 ‘-고(서), -다가, -어(서), -어다가, -자마자’가, 진행상은 ‘-거니~거니, -느라고, -으며, -으면서’가, 예정상은 ‘-고자, -도록, -으러, -으려고’가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상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된 어미들의 목록은 논의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관련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완료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된 어미는 ‘-고’(성기철 1972, 김홍수 1977, 박소영 2003, 고영근 2004), ‘-고서’(고영근 2004, 박재연 2007), ‘-자마자’(고영근 2004, 홍윤기 2005, 박재연 2007)이고, 미완료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된 어미는 ‘-으면서’(박소영 2003, 홍윤기 2005, 박재연 2007, 정해권 2022), ‘-느라고’(박재연 2007, 홍윤기 2005, 정해권 2022)이다. ‘-어서’의 경우, 고영근(2004)에서는 완료상을 표현한다고 보았으나, 강계림(2016)에서는 미완료상을 나타내며 완료상의 ‘-고’와 변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외, 고영근(2004)에서는 ‘-어’와 ‘-다’가도 완료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어미가 표현하는 상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상을 표현하는 연결어미의 형태에도 논의마다 차이가 있어, 상을 표현하는 연결어미의 형태와 표현되는 상적 의미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5) 박재연(2007: 76)에 따르면, 담화화용론에서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형상/바탕 정렬 (figure/ground alignment)’의 개념에 입각하여, 화자는 배경 정보를 바탕(ground)으로 하고 전경 정보를 초점화하여 형상(figure)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주의를 끌어들인다고 보았다(Wallace 1982: 208, Givon 1984: 287-288, 정희자 2002: 30-33).

5.2. 연결어미의 양태적 의미

연결어미가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⁶⁾ 첫 번째는 연결어미의 관계 의미 자체가 양태와 연관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결어미의 관계 의미와는 별도로 양태적 의미가 표현되는 경우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의도’의 양태 의미와 관련된 목적의 연결어미나 ‘비현실성(irrealis)’과 관련된 조건의 연결어미, 양보의 연결어미를 들 수 있다.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또는 평가 양태(evaluative modality)와 관련된 ‘-을세라’, ‘-답시고’ 등과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길래’를 들 수 있다. ‘-길래’의 경우, 인식 양태와 관련하여 ‘지각’의 의미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인 증거성(evidentiality)과 관련하여서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증거성은 인식 양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연결어미의 증거성과 관련된 논의들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5.2.1. ‘의도’, ‘비현실성’

목적의 연결어미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으러, -고자, -으려고’와 같은 목적의 연결어미들은 양태와 관련된 것으로 논의되었다(고영근 1986/1995: 256, 박재연 2006:93, 구분관 외 2015: 341-342). 박재연(2009ㄴ)에서는 조건의 연결어미나 양보의 연결어미도 그 의미 속성 자체가 ‘비현실(irrealis)’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아,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³⁷⁾ 반현실적 조건을 표현하는 ‘-있던들’(박재연 2009

36) 박재연(2009ㄴ)에서는 ‘-있더라면, -있던들, -있더라도’와 같이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결합형이 결과적으로 양태적 의미를 산출하는 경우도 다루었으나, 여기서는 연결어미 자체가 양태적 의미를 갖는 경우로 한정하여 논의한다.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결합형과 관련된 문제는 2.1.에서 검토하였다.

ㄴ: 133, 양정석 2022)과 ‘-었더라면’(양정석 2022), 비현실적 양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논의된 ‘-더라도’(이은경 1990: 77, 최재희 1991: 157), 비현실적 양보를 표현하는 ‘-은들’이 모두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연결어미로 파악될 수 있으나, 박재연(2009)에서는 반례와 선어말어미의 분석을 근거로 ‘-었던들’과 ‘-은들’만을 연결어미로 인정하였다. ‘-더라도’의 경우 비현실적 사태에 주로 사용되지만 현실적 사태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는 점을 들어 제외하였고(서정수 1996: 1268, 박재연 2009 ㄴ: 136), ‘-었더라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다’와 양보의 연결어미의 결합이라고 보아 제외하였다(박재연 2009 ㄴ: 131-134).

5.2.2. 감정 양태 / 평가 양태

기존 논의에서 감정 양태 또는 평가 양태의 표현과 관련하여 제시된 연결어미들로는 ‘-을세라’, ‘-답시고’, ‘-다가는’, ‘-느니’, ‘-기로(서니)’, ‘-련마는’이 있다. 이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을세라’는 ‘경계’나 ‘두려움’(박재연 2006: 93), ‘염려’(김병건 2016: 22)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논의되었고, ‘-답시고’는 ‘비아냥’, ‘경멸’(이선웅 2001: 335), ‘못마땅함’, ‘알잡아 봄’(김병건 2016: 21)을 나타내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다가는’은 ‘경계’나 ‘우려’를 표현하는 것으로(임채훈 2009: 72), 비교의 ‘-느니’는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으로(장경우 2014: 124, 배진솔 2019: 16), ‘-기로(서니)’는 ‘비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이선웅 2001: 335), ‘-련마는’은 ‘실망’을

37) 박재연(2009 ㄱ)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나 명사형 어미가 표현하는 현실(realis)과 비현실(irrealis)의 의미를 ‘현실성 양태(reality modality)’로 양태 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과 비현실의 의미를 양태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논의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다. 관형사형 어미 ‘-을’과 관련하여 문숙영(2009), 임동훈(2009 ㄱ), 박재연(2009 ㄱ), 유현경(2009)에서는 그 의미를 모두 비현실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박재연(2009 ㄱ)에서는 이를 양태로 보았고, 임동훈(2009 ㄱ)에서는 서법으로 보았다. 유현경(2009)에서는 시제라기보다는 ‘양태적 의미를 지닌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문숙영(2009)에서는 견해를 유보하였다.

표현하는 것으로(임채훈 2009: 74) 논의되었다.

양태 관련 연구 가운데서는 감정 양태 또는 평가 양태의 설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연구들도 있다(장경희 1985, 박재연 2006, 임동훈 2008 등). 그러나 김병건(2016: 14-16)에서는 감정은 맥락이나 다른 문법 범주에 의해 발생하는 부수적 의미이고 체계성을 설정하기도 어렵다는 이러한 연구들의 근거가 일면 타당하기는 하지만, 임채훈(2009: 6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와만 호응하는 형태들이 있어 평가 양태가 설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임채훈(2009)에서는 이러한 감정들은 해당 어미가 다른 구성요소와 호응하여 표현되는 추론적 의미인 것으로 보고, 화자가 문장이 표상하는 사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양태성인 ‘사건 평가 양태성’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결어미와 관련해서는 ‘-다가는’, ‘-기로서니’, ‘-런마는’을 예로 들고 있는데, ‘-다가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사건만이 후행절에 올 수 있고 후행절 사건에 대한 ‘경계’나 ‘우려’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로서니’에 대해서는 후행절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건이 오며, 이선웅(2001: 335)에서 분석한 ‘비난’의 의미는 ‘-어도 되는 겁니까?’와 같은 후행 표현의 의미이지 ‘-기로서니’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런마는’은 선행절에는 긍정적 평가의 사건이, 후행절에는 부정적 평가의 사건이 와서 ‘실망’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어미로 파악하였다.

연결어미의 감정 양태 또는 평가 양태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발생하는 감정이나 평가의 종류가 선행절과 후행절 사태 중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을세라’에 대해서도 ‘-다가는’에 대해서도 ‘경계’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을세라’의 ‘경계’는 선행절 사태에 대한 것이고 ‘-다가는’은 후행절 사태에 대한 것으로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아울러 연결어미와만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나, 동일한 감정에 대해 여러 ‘염려’, ‘우려’와 같이 다른 메타언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메타언어의 분류와 사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5.2.3. 인식 양태 및 증거성

기존 논의들에서 인식 양태와 관련하여 ‘지각’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된 어미들로는 ‘-거든, -길래, -기에, -으니, -으니까, -었더니’가 있다. 임채훈(2007)에서는 이들이 모두 ‘지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았고, 박재연(2009ㄴ)에서는 이 가운데 ‘-길래’만을 ‘지각’의 연결어미로 인정하였다. 박재연(2009ㄴ: 136-137)에서는 ‘-거든’이 선행절 사태에 대한 지각을 가정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언제나 지각 상황에만 쓰이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았으며, ‘-거든’에는 지각 형식들이 흔히 갖는 인칭 제약도 없으며, ‘지각’의 의미가 쉽게 읽히지 않는 예들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으니’에 대해서도 ‘-으니’는 ‘지각’의 의미가 후행절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선행절 사태에 ‘지각’의 의미가 관련되는 ‘-길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었더니’에 대해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더’와 ‘-으니’의 결합형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연결어미로 보지 않았다.

‘지각’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논의된 어미들 가운데 ‘-거든’과 ‘-기에’를 제외한 나머지 어미들은 증거성을 나타내는 어미들로도 논의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그간 증거성과 관련하여 논의된 연결어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화자가 시각 등의 감각을 통해 취득한 정보임을 표시하는 직접 증거성(direct evidentiality)과 관련된 어미들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누군가의 말에서 비롯된 정보임을 표시하는 전달 증거성(reported evidentiality)과 관련된 어미들이다. 직접 증거성과 관련하여 논의된 연결어미들로는 ‘-길래’, ‘-으니’, ‘-더니’, ‘-었더니’, ‘-던데’, ‘-던지’가 있고, 전달 증거성과 관련하여 논의된 연결어미들로는 ‘-다고’, ‘-라고’, ‘-자고’가 있다.

이들 가운데, 증거성 논의에서 연결어미의 예로 거의 항상 제시되는 것은 ‘-길래’이다. ‘-길래’는 원인의 관계 의미 외에 선행절에 화자가 직접 보거

나 경험한 사태가 온다는 점에서 증거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임채훈 2008, 박재연 2009, 정인아 2010, 박진호 2011: 21-22, 이의종 2012, 서경숙 2013, 양정석 2022 등).³⁸⁾

‘-으니’는 임채훈(2008: 217)에서 감각적 증거성(sensory evidentiality)을 표현하는 어미로 제시된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어제 학교에 가니 학교가 공사 중이었어.”에서와 같은 ‘계기적 지각’의 ‘-으니’는 화자가 행위 후에 계기적으로 지각한 사건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선행절이 지각 사건인 ‘-길래’와 체계적인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박재연(2009: 216)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미에서 구현되는 문법범주는 그 어미가 붙은 바로 그 절의 의미론에 관여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길래’와 같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더니’, ‘-었더니’, ‘-던데’, ‘-던지’는 연결어미의 증거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선어말어미 ‘-다’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는 어미들이다. 이들을 증거성을 표현하는 연결어미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증거성의 의미 자체보다는 이들의 분석 가능성 여부에 따른 것이다. 즉, 이들을 하나의 연결어미가 아닌, 선어말어미 ‘-다’와 후행 연결어미의 결합형으로 본다면 이들을 증거성을 표현하는 연결어미 목록에서 제외하게 된다.

전달 증거성과 관련하여 논의된 ‘-다고’, ‘-라고’, ‘-자고’는 모두 간접인용 구문에서 비롯된 연결어미들로, 이들 표현하는 전달 증거성의 의미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고’는 원인이나 목적 등을 표현하고(박만규 1995, 남미정 2010, 강규영 2017, 이금희 2022 등) ‘-라고’와 ‘-자고’는 목적을 표현하는 것으로(채숙희 2011, 구종남 2016, 강규

38) 이의종(2020: 123-126)에서는 ‘-길래’가 ‘지각’의 양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한 박재연(2009: 122-126)과 같이 모든 ‘-길래’가 이러한 직접 증거성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선행절 사태를 지각한 화자의 즉각적인 대응을 후행절에 묘사하는 기능을 갖는 다 음 예에서와 같은 ‘-길래’만 직접 증거성을 표현함을 지적하였다.
아니 나는 화장품 가방에 없길래 아 내가 분명히 집에서 화장품 가방에다 넣었는데 없어 가지구. 놓고 왔나 부다 이러구 있었지.

영 2017, 이금희 2022 등) 논의된 바 있다. 이들을 전달 증거성과 관련지은 연구로는 강규영(2017)과 이금희(2022)가 있다.

강규영(2017: 81-88)에서는 이들의 함축적 의미를 전달 증거성 표지가 갖는 뉘앙스(overtone)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원인, 목적의 연결어미들과는 구분되는 이들의 특성, 즉 이들이 화자가 전해들은 정보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경우에도 쓰이고, 화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쓰이며, 화자가 그 이유나 목적의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쓰이는 것이 전달 증거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파악한 것이다.³⁹⁾

이금희(2022)에서도 기존의 원인, 목적 등의 연결어미와 구분되는 ‘다고’, ‘-라고’, ‘-자고’의 특성이 전달 증거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강규영(2017)과 달리 발화의 객관성 확보나 책임 회피나 정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의미가 아니라, 전달 증거성이 간접 증거성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내면화되지 않은’ 이유나 의도로 이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다고’가 ‘-어서’나 ‘-으니까’와 달리 화자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이유나 일반적·보편적 인과관계에 쓰일 수 없는 제약을 ‘내면화되지 않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⁴⁰⁾

한편, 전달 증거성은 흔히 명제가 뜻밖이거나 신정보임을 나타내는 의외성(mirativity)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Aikhenvald 2004: 204). 강규영(2017: 88-91)에서는 “병이 좁다고 술이 안 들어가네.”와 같이 ‘-다고’가 비

39) 제시된 해당 예를 각각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 철수는 비가 (온다고, ²와서) 우산을 챙겼다. 정말 비가 와서 챙긴 것일까?

나. 철수는 비가 온다고 우산을 챙겼다. 사실 여자 친구 가져다 줄 건데 꼭스러워서 그런 착한 것이다.

나. 철수는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겼다. ²사실 여자 친구 가져다 줄 건데 꼭스러워서 그런 착한 것이다.

다. 철수는 비 몇 방울 (온다고, 와서) 우산을 챙겼다.

40) 제시된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나는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없으니까/없다고) 모임에 못 갔다.

나. 길에 차가 (많아서/많으니까/많다고) 영희는 빨리 달릴 수가 없다.

의지적 사건에 대한 원인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외성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6. 연결어미의 사용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어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연결어미의 체계나 개별 연결어미들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사·의미적 접근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대규모 언어 자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2000년을 전후하여서는 실제 자료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용역(register)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다.

6.1. 구어와 문어에서의 연결어미 사용 양상

이은경(1998), 이은경(1999), 박석준 외(2003)은 기존의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가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인식 하에 구어와 문어에서 연결어미의 빈도 및 사용 양상을 살핀 연구들로, 자료 중심의 연결어미 연구의 시작점에 있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은경(1998)은 구어 자료인 약 3만 어절의 텔레비전 토크쇼 전사 자료를 분석하여 고빈도 연결어미들을 중심으로 연결어미로 연결된 절들 간의 독립성과 의존성 문제를 살폈다. 독립성이 높은 ‘-는데’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을 분리하는 데에, 의존성이 높은 ‘-어서, -다가, -면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은경(1999)에서는 약 36,000어절의 텔레비전 토크쇼 전사 자료를 같은 규모의 문어 자료와 비교하여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는

구어에서 더 높고, 연결어미의 종류는 문어에서 더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어서’가 구어에서는 선행의 의미로, 문어에서는 방식·수단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지만’의 대조 기능은 구어보다 문어에서 더 고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은경 1999: 193-195).

박석준 외(2003)은 약 15만 어절 규모의 일상대화 말뭉치와 150만 어절 규모의 문어 말뭉치를 비교하여 조사와 어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논문이다. 연결어미와 관련해서는, 전체 어절 수에 대한 연결어미의 실현 비율에 있어서는 구어와 문어가 유사하나, ‘-고’, ‘-어’, ‘-게’, ‘-지’ 등은 문어와 구어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반면에, 구어에서는 ‘-으면’, ‘-는데’의 사용 빈도가 높고 ‘-으며’는 사용 빈도가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박석준 외 2003: 156-159).

6.2. 연결어미의 사용역별 사용 양상

민경모(2000), 배진영 외(2013), 방지혜(2017), 한희정(2017), 이의종(2020) 등은 사용역, 즉 언어 자료가 산출된 상황 맥락에 따라 분류된 텍스트의 부류(이의종 2020: 6)에 따라 연결어미의 빈도 및 사용양상을 검토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어뿐 아니라 문어까지 포괄하여 사용역을 세분화하고 실제 자료에서 연결어미가 사용되는 양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구어와 문어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연구라 할 수 있다.

민경모(2000)은 약 5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사설’, ‘기사’, ‘소설’, ‘논문’, ‘강의’, ‘대화’ 등 30개의 텍스트 장르⁴¹⁾를 설정하고 어말

41) 민경모(2000: 9)에서는 Ferguson(1994: 21)을 따라 ‘텍스트 장르’를 ‘의미 내용, 참여자, 사용 기회 등에 의해, 사회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서, 다른 장르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동질화된 내적 구조로 발전하는 메시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 장르의 개념은 언어 외적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사용역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어미의 사용 양상을 여러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연결어미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에 있어 상황서술성 대 계획성, 관계적 담화 연쇄 대 분리적 담화 단편, 주관적 입장의 세 가지 차원이 설명력 있게 작용함을 밝혔으며(민경모 2000: 41-50), 연결어미의 사용과 관련하여 격식적 발화 상황의 텍스트, 비격식적 발화 상황의 텍스트, 모형화된 발화 상황의 텍스트, 사실 및 정서 설명의 텍스트, 계획된 정보 전달의 텍스트와 같은 다섯 가지 텍스트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민경모 2000: 58-60). 또한 소설에서 ‘-은지’, ‘-더니’, ‘-으면서도’, ‘-자’와 같이 텍스트 장르의 특징을 현저하게 나타내는 연결어미들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민경모 2000: 71-82).

배진영 외(2013)에서는 약 440만 어절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Biber et al.(1999)에 따라 ‘소설’, ‘학술’, ‘대화’, ‘신문’의 네 가지 사용역을 상정하고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어미, 접사, 어근 등의 사용 빈도 및 어휘 다양도를 분석하였다.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는 ‘소설’, ‘학술’, ‘대화’, ‘신문’의 순으로, 어휘 다양도는 ‘대화’, ‘소설’, ‘신문’, ‘학술’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배진영 외 2013: 253-254).

방지혜(2017)과 한희정(2017)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사용역별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 및 분포를 분석한 논문이다. 방지혜(2017)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의 현대국어말뭉치 약 900만 어절을 ‘대화’, ‘신문’, ‘잡지’, ‘책(상상)’, ‘책(정보)’의 다섯 가지 사용역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책(상상)’ 사용역에서 대부분의 고빈도 연결어미가 자주 사용되며, 조건 관계 연결어미는 예외적으로 ‘대화’ 사용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희정(2017)은 세종-민족문화연구원 코퍼스 확장판과 고려대 음성언어센터 구어 자료 약 1억 어절을 ‘순구어(전사)’, ‘신문’, ‘책(상상)’, ‘책(정보)’, ‘자유대화’, ‘주제발화’, ‘토론’ 등 7개의 사용역으로 나누어 접속조사와 연결어미, 접속부사를 분석한 논문이다. 연결어미와 관련해서는, 구어 사용역의 경우 ‘-어서’는 ‘순구어(전사)’와 ‘주제발화’, ‘토론’에서, ‘-는데’는 ‘자유대화’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한희정 2017: 71), 문어 사용역의 경우 ‘-어서’는 ‘책(상상)’과

‘책(정보)’에서, ‘-으면’은 ‘신문’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한희정 2017: 91).

이의중(2020)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말뭉치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약 12억 어절의 대규모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역에 따른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와 다의 의항의 출현 빈도를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텍스트언어학 연구의 텍스트 유형 분류, Biber and Conrad(2009)의 사용역 분류, 강범모 외(1998)의 텍스트 유형 분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적용하여, [문어], [상호], [격식], [서사], [문학]의 다섯 가지 자질을 근거로, ‘일방적 발화’, ‘비격식적 대화’, ‘격식적 대화’, ‘픽션 대화’, ‘픽션 지문’, ‘운문 문학’, ‘수필 문학’, ‘논픽션/교양 도서’, ‘뉴스 보도’, ‘신문 보도’, ‘학술 문헌’의 11가지 사용역을 설정하고 있다. 총 48개의 고빈도 연결어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연접’, ‘이접’, ‘원인’, ‘목적’, ‘계기’, ‘조건’, ‘양보’의 의미범주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개별 어미들에 대한 사용역별 사용 빈도뿐 아니라 같은 의미범주에 속하는 여러 어미들 간의 사용 빈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용역으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사 어미들을 조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통사·의미적인 차이로는 잘 설명되지 않았거나 직관적으로만 사용역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어미들 간의 사용역별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사용 빈도에 대한 분석에서 머물지 않고 그간의 연구에서 밝혀진 통사·의미적인 특성들과 텍스트를 산출한 상황 맥락이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어,⁴²⁾ 그간 논의된 통사·의미적인 특성들이 연결어미의 사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⁴³⁾

42) 예를 들어, ‘-도록’은 ‘-으려고’, ‘-고자’와 달리 행위자의 의도를 강조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술’, ‘보도’와 같은 객관적 정보 전달의 격식적 사용역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의중 2020: 189-191). 또 다른 예로, ‘-으러’는 이동동사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역동적, 구체적 사건의 ‘픽션 대화’나 ‘픽션 지문’, ‘비격식적 대화’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다고 파악하였다(이의중 2020: 197-199).

43) 이상의 연구들은 사용역을 일정하게 분류하고 사용역별로 주요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

이와 같이 사용역에 기반한 연구들은 사용역별로 연결어미 사용의 경향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유사한 통사·의미적 특성을 가진 연결어미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각 어미들의 세부적인 특성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사용역 기반의 분석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자료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자료 구성의 다양성, 균형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분석의 결과 제시에 있어서도 단순한 경향의 제시를 넘어 기존에 밝혀진 통사·의미적 특성들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의종(2020)의 성과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다양한 연결어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연결어미 자체의 사용 빈도와 분포 중심의 연구를 넘어 연결어미와 용언,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의 결합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연결어미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나, 사용역의 분류 자체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결어미의 사용역에 대한 연구 중 일부는 사용역 분류 자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 없이 사용하는 말뭉치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거나 약간의 수정만을 가한 경우도 있었다. 사용역의 분류 방식은 목표 항목의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과 실제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의종(2020)에서는 사용역 자질을 설정하여 사용역을 분류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최근 최윤지(2023)에서는 사용역 자질을 이용하여 문법 현상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특정 사용역을 하위 분류하여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거나 특정 의미 범주에 속하는 연결어미들의 사용역별 양상을 분석한 논문들도 있다. 김혜진(2017)에서는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신문의 ‘사설’, ‘사회’, ‘스포츠’ 영역으로 구별된 자료를 골라 주제 영역별로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영순(2010)에서는 세종계획 형태소 분석 말뭉치를 ‘구어’, ‘창작문’, ‘학술 및 기타 출판물’, ‘뉴스’의 네 가지 사용역으로 분류하여 양보와 대조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들이 사용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을 설명하는 방식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결어미를 사용역에 기반하여 분석할 경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고찰을 통해 가장 적합한 사용역 분류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 결론

본고에서는 연결어미의 형태와 목록, 연결어미가 결합한 절의 통사적 지위, 의미, 상과 양태, 사용역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 한국어 연 연결어미의 연구에서의 성과들을 정리해 보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의 성과들이 반영되어 주요 연결어미들의 목록이 마련되었으며, 연결어미들의 통사·의미적 특성이나 상적·양태적 특성은 상당 부분 규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어미의 목록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며, 주요 연결어미들의 경우에도 미세한 통사·의미적 차이, 실제 사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들로 인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복문의 체계와 관련된 문제나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 의미 범주 설정 등과 관련된 일부 문제들은 여전히 논란의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연구에서 연결어미의 중요성 및 실용적 가치, 그리고 여러 언어의 다양한 현상들을 검토한 언어유형론적 접근과 함께 대규모의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어 연결어미에 대한 논의들은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펼쳐질 것이라 기대되며,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넓은 범위에 걸쳐 여러 주제들에 대해 논하다 보니 본고의 제목에 걸맞은 심도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연구들의 소개에 그치거나, 연구의 깊이와 의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보조적 연결어미의 특성과 지위, 원인을 나타내는 다양한 연결어미들의 비교 분석,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와 같이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임에도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현대 한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구의 시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참고문헌

- 강계림(2016), 상황상에 따른 연결어미 ‘-어서’의 의미 분화, 《한말연구》 40, 한말 연구학회, 5-31.
- 강규영(2017),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 연구, 《국어연구》 267, 국어연구회.
- 강범모 · 김홍규 · 허명희(1998),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체 분석,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3-57.
- 고영근(1986/1995), 《단어 · 문장 · 텍스트》, 한국문화사.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고영근 · 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개정판), 집문당.
- 공나형(2022), 연결 어미 ‘-게’의 의미적 확장과 통사적 제약, 《어문론총》 93, 한국문학언어학회, 7-39.
- 구본관 · 박재연 · 이선웅 · 이진호 · 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1: 개관, 음운, 형태, 통사》, 집문당.
- 구중남(2016), 인용표지의 연결어미적 기능, 《국어문학》 63, 국어문화회, 71-101.
- 권재일(1985), 《국어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김강아(2020), 한국어 연결어미 ‘-지만’의 의미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건희(2012), 부사절의 수식과 접속: 종속 접속절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글》 297, 한글학회, 161-203.
- 김병건(2016), 한국어 평가양태에 대한 연구, 《국제어문》 70, 국제어문화회, 7-28.
- 김선혜(2014), 한국어 내포문 체계에 대한 재고: 부사절과 인용절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 131-156.
- 김성화(1990), 《국어의 상 연구》, 한신문화사.
- 김수정(2019), 접속 영역의 관점에서 본 국어의 접속문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1991), 종속접속문의 통사적 양상, 《서재극 박사 환갑기념논문집》,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영희(1998)에 실림, 73-98.]
- 김영희(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 김영희(2004), 종속 접속문의 조응 현상과 구조적 이중성, 《국어학》 43, 국어학회, 247-272.
- 김인택(1993), 한국어 종속마디와 어찌마디, 《국어국문학》 30,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73-298.
- 김종록(2002), 종결어미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분석, 《어문학》 75, 한국어문학회, 1-19.
- 김종록(2004), 선어말어미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표제어 분석, 《어문학》 84, 한국어문학회, 39-73.
- 김종록(2007), 선어말어미 ‘-는, -느-’ 통합형 접속어미의사전 표제어 분석, 《어문학》 95, 한국어문학회, 23-54.
- 김종록(2010),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분석,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161-184.
- 김종록(2019ㄱ), 접속어미 ‘-면’의 다의성과 통사·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탐색, 《문화와 융합》 41-4, 한국문화융합학회, 931-976.
- 김종록(2019ㄴ), 접속어미 ‘-(는)다면’의 문법화와 통사·의미 확장, 《어문학》 145, 한국어문학회, 1-31.
- 김혜영(2019), 현대 한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진(2017), 신문 텍스트의 주제 영역별 장르성에 따른 연결 어미 사용 양상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4-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13-146.
- 김홍수(1977), 계기의 ‘-고’에 대하여, 《국어학》 5, 국어학회, 113-136.
- 나은마·최정혜(2009), 현대국어 보조사의 분포에 대한 연구: 사용 빈도와 선행 요소와의 결합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31-159.
- 남기심(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69-77.
- 남기심·고영근(1985/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 남미정(2010), ‘-다고’류 어미의 형성과 의미, 《한말연구》 26, 한말연구학회, 109-131.
-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 문숙영(2019), 과연 한국어의 종속접속절은 부사절인가, 《언어》 44-3, 한국언어학회, 489-532.

- 민경모(2000), 국어 어말어미류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근영(2015), 연결어미 ‘-(으)라고’의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50, 한국어의미학회, 147-187.
- 박만규(1995), 완형문 ‘-고’문의 동사보어/문장보어 구분, 《관대논문집》 23, 관동대학교, 373-388.
- 박민신(2016), 연결어미 ‘-어서’의 다의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54, 한국어의미학회, 1-31.
- 박석준 · 남길임 · 서상규(2003), 대학생 구어 텍스트에서의 조사 · 어미의 분포와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14,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39-167.
- 박소영(2003), 연결어미의 관점 상 기능, 《형태론》 5-2, 형태론, 297-326.
- 박승윤(2007), 양보와 조건, 《담화와 인지》 14-1, 담화 · 인지언어학회, 63-83.
- 박재연(2003),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더-’에 대하여, 《어문연구》 1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5-109.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재연(2007), 문법 형식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 ‘-으면서, -느라고, -고서, -자마자’의 의미 기술을 위하여, 《한국어 의미학》 22, 한국어의미학회, 73-94.
- 박재연(2009ㄱ),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51-177.
- 박재연(2009ㄴ), 연결어미와 양태: 이유, 조건, 양보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119-141.
-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119-141.
- 박재연(2014),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국어학》 70, 한국어학회, 117-155.
- 박진호(2011),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 박진희(2012), 국어 절 접속의 의미관계 유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호관(2015), 연결어미 ‘-(으)면서’ 구문의 사상과 의미망, 《우리말글》 67, 우리말글학회, 1-27.
- 방지혜(2017), 연결어미의 사용역 분포 및 서술어와의 공기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진솔(2019), 비교의 연결어미 ‘-느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진영 · 최정도 · 김민국(2013), 《말뭉치 기반 구어 문어 통합 문법 기술 1: 어휘 부류》, 박이정.
- 서경숙(2013), 증거 양태와 연결어미 ‘-길래’, 《대동문화연구》 8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87-508.
- 서명숙(2013),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양보] 문법항목 이해 양상과 효과적인 수업모형 개발: 복합형 ‘-는데도’, ‘-고도’, ‘-으면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수(1978), ‘(있)더니’에 관하여, 《눈피 허 웅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329-357.
- 서정수(1996), 《국어 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 서태룡(1998), 접속어미의 형태,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435-464.
- 성기철(1972), 어미 ‘-고’와 ‘-어’에 대하여, 《국어교육》 1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353-367.
- 손옥(2019), 한국어 어미 ‘-더니’와 ‘-었더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재목(2011 ㄱ), ‘-더니’와 ‘-었더니’: 선어말어미 ‘-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60, 국어학회, 33-67.
- 송재목(2011 ㄴ), ‘-으니’와 ‘-더니’, ‘-었더니’의 의미 기능: 접속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185-212.
- 송재영 · 한승규(2008), 연결 어미 ‘-더니’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177-198.
- 송창선(2014), ‘-(있)더니’의 형태와 기능, 《한글》 306, 한글학회, 51-74.
- 신지연(2004), 대립과 양보 접속어미의 범주화, 《어문학》 84, 한국어문학회, 75-98.
- 안명철(2001), 부사어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어문연구》 2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27.
- 양정석(2022), ‘-더-’ 계통 연결어미들의 형식의미론적 기술, 《배달말》 71, 배달말학회, 1-40.
- 양지현(2021), 접속어미 ‘-다고’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67, 우리말학회, 77-96.
- 오로지(2012), 연결어미 ‘-고도’, ‘-고는’의 문법, 의미 기술에 대하여,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문법교육학회, 110-118.
- 위설교 · 허춘화(2022),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확장에 대한 인지적 해석,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2》, 한중인문학회, 200-209.

-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한글학회, 77-104.
- 유현경(2001), 간접인용절에 대한 연구, 《국어 문법의 탐구 V》, 태학사, 77-92.
- 유현경(2002ㄱ), 부사형어미와 접속어미,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333-352.
- 유현경(2002ㄴ), 어미 ‘-다고’의 의미와 용법,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99-122.
- 유현경(2009), 관형사형 어미 ‘-을’에 대한 연구: 시제 의미가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어문학》 104, 한국어문학회, 57-81.
- 유현경(2011), 접속과 내포,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339-391.
- 유현경·이찬영(2020), 어미 결합형의 사전적 처리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35, 한국사전학회, 108-144.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윤정원(2011), 인용절의 범주화에 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55,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169-190.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신문화사.
- 이관규(1992), 《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이금희(2006),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금희(2012), 조건을 나타내는 ‘다가는, -고는, -어서는, -고서는’에 대하여, 《언어와 문화》 8-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27-250.
- 이금희(2017), 한국어 양보절 접속어미의 문법 범주와 의미 특성에 대하여: ‘-어도, -더라도, -(으)르지라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8, 한민족어문학회, 117-146.
- 이금희(2022), ‘-다고’류 연결어미의 문법화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학》 104, 국어학회, 157-190.
- 이선영(2011), 한국어의 [대립]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한 논의, 《태릉어문연구》 17, 서울여자대학교, 79-93.
- 이선웅(2001), 국어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18-339.
- 이승녕(1961/1981), 《개정증보판 중세국어문법: 15세기어를 주로 하여》, 을유문화사.
- 이원표(1999), 인과관계 접속표현: 세 가지 의미 영역과 일관성의 성취, 《언어》 24-1, 한국언어학회, 123-158.

- 이은경(1990), 국어의 접속 어미 연구, 《국어연구》 97, 국어연구회.
- 이은경(1998), 텔레비적 토크쇼 텍스트의 연결 어미 분석, 《텍스트언어학》 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81-204.
- 이은경(1999), 구어체 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연결 어미의 기능, 《국어학》 34, 국어학회, 167-198.
- 이은경(2015), 한국어 연결 어미의 의미 기술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3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333-359.
- 이은경(2018), 한국어 연결어미의 의미 체계: 윤평현(2005)를 중심으로, 《형태론》 20-1, 형태론, 1-28.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 이의종(2012), 증거성과 정보 관할권의 상호작용, 《국어연구》 236, 국어연구회.
- 이의종(2020), 한국어 연결 어미의 레지스터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개정판), 학연사.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 이익섭 · 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익섭 · 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필영(2011), ‘-있더니’의 통사와 의미, 《어문연구》 69, 어문연구학회, 61-87.
- 이희자(1996), 어미 및 어미형태류의 하위 범주 문제: 어미 조사의 한국어 사전 편찬 연구 1, 《국어학》 28, 국어학회, 335-393.
- 이희자 · 이종희(1999), 《사전식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 한국문화사.
- 임동훈(1998), 어미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국립국어연구원, 85-110.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 임동훈(2009ㄱ), ‘-을’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55-81.
- 임동훈(2009ㄴ),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87-130.
- 임은하(2002), 현대국어의 인과관계 접속어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채훈(2007), 국어 문장의 의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채훈(2008), “감각적 증거” 양태성과 한국어 어미교육: “-네”, “-더러”, “-더니”, “-길래” 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7, 이중언어학회, 199-234.
- 임채훈(2009), 사건 호부 평가 양태성 표현 연구: 의미 체계 설정 및 표현 항목 제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5-81.
- 임채훈(2020),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과 메타언어 선정에 대하여: 후행절 제약 양상

- 을 토대로, 《언어사실과 관점》 5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87-316.
- 임홍빈(1995), 규범성과 충실성의 문제: ‘종합국어대사전’ 편찬에 바란다, 《새국어 생활》 5-1, 국립국어원. [임홍빈(1998)에 실림, 441-453.]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III: 어휘범주의 통사와 의미》, 태학사.
- 임홍빈 · 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장경우(2014), 비교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느니’의 양태성 연구, 《어문학》 124, 한국어문학회, 103-127.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장경희(1987), 국어의 완형보절의 해석, 《국어학》 16, 국어학회, 487-519.
- 장경희(1995),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 227, 한글학회, 151-174.
- 장요한(2007), ‘문장의 확장’에 대한 소고, 《시학과 언어학》 14, 시학과 언어학회, 191-220.
- 장윤예(2022), 연결어미와 조사 ‘은/는’의 결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태희 · 신지영(2020), 절의 통사 유형에 따른 운율적 실현 양상, 《한국어학》 86, 한국어학회, 205-236.
- 전혜영(1989),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수진(2011), 연결어미 ‘고’의 다의적 쓰임에 대한 인지적 해석, 《언어과학연구》 58, 언어과학회, 211-232.
- 정수진(2012), 연결어미 ‘어서’의 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405-426.
- 정수진(2013), 국어 연결어미의 의미 구조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글》 302, 한글학회, 199-222.
- 정인아(2010),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해권(2022), 한국어 연결어미 ‘-(으)면서’와 ‘느라고’의 시간 해석과 의미 확장, 《담화와 인지》 29-2, 담화 · 인지언어학회, 173-193.
- 정희자(2002),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 조영순(2010), 세종말뭉치에 기초한 양보와 대조 어미의 사용 분석, 《언어》 35-4, 한국언어학회, 1127-1148.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고영근, 이현희 역주(1986), 《주시경 국어문법》, 탑출판사.]
- 주지연(2015), 한국어 병렬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숙희(2011), 결과의 ‘-라고’와 목적의 ‘-자고’에 대하여,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7-119.
- 최규수(2019), 접속어미와 보조조사의 통합과 융합에 관하여, 《한글》 80-4, 한글학회, 793-822.
- 최윤지(2023), 구어와 문어의 이분을 넘어 개별 사용역 자질에 기반하는 문법 연구 제안, 《어문연구》 5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39.
- 최재희(1991),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탑출판사.
- 최정진(2013), ‘엇더라면, (엇)더니’에 포함된 ‘-더-’의 정체성, 《한국어 의미학》 41, 한국어의미학회, 199-229.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하영우·김민국(2018), 접속문의 의미·통사 구조와 운율 실현 양상: 연결어미 ‘-고’ 접속문을 중심으로, 《국어학》 88, 국어학회, 137-172.
- 한희정(2017), 한국어교육을 위한 접속 표현 연구: 언어 사용역에 따른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함병호(2020), 간접 인용절의 통사적 지위, 《국제언어문학》 47, 국제언어문학회, 343-375.
- 홍윤기(2005), 연결어미의 상적 의미 표시 기능: ‘-느라고, -(으)면서, -자마자, -다 보니, -고 보니’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09-129.
- 황현동(2021), ‘-어도’절의 사실성에 대하여: 연결어미 ‘-어도’의 은유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57-287.
- Xu Chunhua(2018), 한국어 시간 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ikhenvald, A. (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ber, D. and E. Finegan(Eds.)(1994), *Sociolinguistic perspectives on regist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iber, D. and S. Conrad(2009), *Register, Genre and Sty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and E. Finegan(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Harlow: Longman.
- Dixon, R. M. W. and A. Y. Aikhenvald(eds.)(2009),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A Cross-linguistic Ty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erguson, C. A.(1994), Dialect, register and genre: Working assumptions about

- conventionalization, in Biber and Finegan(Eds.)(1994), 15-30.
- Givon, T.(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ume I*,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Hopper, P.(ed.)(1982), *Tense and 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Sohn, H-M, (2009),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in Korean, in Dixon, R. M. W. & A. Y. Aikhenvald(eds.)(2009), 285-317.
- Sweets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lace, S.(1982), Figure and Ground: the interrelationships of Linguistic Categories, in Hopper, P. ed.(1982), 201-223.

[22012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032-835-8113

E-mail: sukichae@inu.ac.kr

투고 일자: 2023. 8. 13.

심사 일자: 2023. 8. 17.

게재 확정 일자: 2023. 9. 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Modern Korean Connective Ending Research
[Chae, Sook-Hee]

현대 한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성과와 과제 [채숙희]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review achievements of research on connective endings in Modern Korean and to suggest topics for future research.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paper analyzed connective ending research in four areas of morphology, syntax, semantics, and usage. First, research on distinguishing compound endings and making their list is analyzed with regard to morphology of connective endings. Second, research on grammatical status of clauses with connective endings is analyzed with regard to syntax of connective endings. The issue whether the clauses are conjoined or embedded has long been the subject of controversy. Third, research on semantic system and semantic category of connective endings is analyzed with regard to semantics of connective endings. Research on meaning extension of connective endings and research on metalanguage used in describing meanings of connective endings are also analyzed. Aspect and modality of connective endings was another research topic which was need to be analyzed. Finally, research on usage of connective endings by register which is based on large-scale data analysis is analyzed with regard to usage of connective endings.

Key Words: connective ending, compound ending, conjoined clause, adverbial clause, semantics, aspect, modality, register